

# 전북, 비수도권 최초 '벤처펀드 1조 시대' 개막

### 누적 결성액 1조994억 달성... 도내 기업 3306억 투자 유치·고용 811명 증대

###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 공식 선포 및 유망 스타트업 IR 진행 등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원 조성'을 조기 달성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독자적인 성과로, 지역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개최하고,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1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유동준 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정책 출자기관장, 투자사(VC·AC),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장세를 기록했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원에 머물렀던 결성 규모가 민선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개 펀드 2,338억원, 2024년 9개 펀드 3,368억원, 2025년 9개 펀드 3,183억원이 결성됐다.

연말까지 2개 펀드 810억원이 추가돼 총 31개 펀드, 1조9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마중물 삼아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 펀드에서 1,033억원이 직접 투자됐고, 이를 통해 2,273억원의 공동투자가 이뤄졌다. 투자 받은 기업 37개사의 고용 인원은 1,453명에서 2,264명으로 811명(55.8%) 증가했으며, 31개사의 연 매출액은 2,890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1,860억원 늘었다. 특히 13개 도의 기업이 투자를 계기로 전북에 본사나 공장을 이전해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유망기업 IR 및 패널토론회,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1

부에서는 세라진첨단소재, 에너이버 배터리솔루션, 에이치기술루션, 정석 케미칼 등 도내 유망기업 4개사가 기업설명회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북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패널토론회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펀드 조성 유공 기관 포상과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으며,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이 공식 선포됐다. J-피움은 '투자와 혁신, 전북의 미래를 쫓 피우다'라는 의미를 담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상징한다.

도는 새롭게 출범한 'J-피움'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후속투자, 스케일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J-피움은 'Jeonbuk(전북)-Prove(인증)-Invest(투자)-Unite(연계)-Major(대표)'의 의미를 담아 지역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J-피움 브랜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전북이라는 토양 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유동준 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정책 출자기관장, 투자사(VC·AC), 스타트업 대표 등이 벤처펀드 1조 달성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국장급 승진인사 (총 9명)

반상운 김철태 양선화 이경영  
이지형 정광모 노창환 최정일 한순옥

## 도, 내년 상반기 승진내정자 발표

### 정기인사 통해... 국장급 9명·과장급 13명 등 총 86명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국장급을 포함한 총 86명이 대거 승진됐다.

국장급 승진 인사는 9명이다.

먼저 행정직에서는 반상운 예산과장과 김철태 대변인,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이경영 문화산업과장, 이지형 대외협력과장, 정광모 안전정책과장이 부이사관(국장급)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소수직인 노창환 보건외과과장(보건직), 최정일 총무과(토목직),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환경직)도 국장급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

과장급(서기관급) 승진자는 총 13명으로, 박신미 인구정책팀장, 박영철 새만금기획팀장, 서창순 교육협력팀장, 양상봉 디지털정책팀장, 이미숙 관광정책팀장, 최정숙 지역경제팀장, 한경모 보건정책팀장 등 행정직 7명과 서영민 수소산업팀장(전기), 김홍춘 축산진흥팀장(축산), 채중석 수산물가공유통팀장(해양수산), 한정원 건강정책팀장(보건), 안종환 자연복구지원팀장(토목), 최기만 도시계획팀장(토목)이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팀장급 29명, 6급 이하 35명 등도 이날 발표된 승진내정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전년 대비 한 단계 ↑

### 넓은 행정문화 척결 등 고강도 청렴 정책·현장 중심 실천

### 도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조직 내부 투명성 상승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5등급으로 측정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합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최종 등

급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으며, 청렴체감도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 청렴노력도 역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것은, 도 구성원 전반이 강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도청 전반에 걸쳐 조직 혁신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해 말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도청혁신 레드팀'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갑질 등 내부 비위 문제는 물론, 실무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광역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공직사회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관행처럼 운영되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일괄 국외여비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정착에 힘썼다.

또한 도청 본청과 도의회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 정조준 캠페인' 등 참여형 청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감사위원장이 90여 개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렴특목데이'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천도 병행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내에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반부패·청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전북자치도 공직자 모두의 확고한 청렴 의지와 실천,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공사 사장, 새만금 활성화 방안 제시

### '제2회 한-중 미래포럼 세미나' 참석... 한중 양국 협력 방향 논의 오픈 카지노 포함 다양한 복합시설 통해 체류형 관광지 도약 강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난 22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한-중 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군산대학교와 주한중국대사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군산대학교 국제교육원, 한-중 미래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경제·관광·산업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사장은 '복합리조트(IR) 도입을 통한 새만금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특히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시설을 통해 내국인과 중국인 관광객 대상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사장은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새만금과 전북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청,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지나해보다 한단계 등급 상승... 내년도 국민 체감 시책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청의 평가 등급은 2023년에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이었으나 2024년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기관장과 노조 청렴 협약식' 개최, 중앙시책 최초 민·청·정 만족도 조사 시스템 '청렴해피콜' 운영, 민·관 합동 '청렴 플로깅' 실시, '청렴 주간' 운영 등 올해 중점 추진한 반부패·청렴 시책들이 내·외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새만금청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 시책을 계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청렴도 평가 우수 등급은 전 직원들이 청렴 원칙과 실천에 충실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렴이 우리청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기본 자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농식품 동남아 수출 확대 본격화

### 베트남 하노이 방문... 현지 판촉 점검·유통기업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K-푸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확대에 나섰다.

23일 도는 지난 21일부터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을 아우르는 현지 판촉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내 농가와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21일부터 이틀간 현지 유통매장인

K-MARKET과 ONE MART를 찾아 전북 가공식품 판촉 운영 상황과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이번 판촉에서는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 패턴을 고려해 만두류와 볶음밥 등 도내 우수 기업의 냉동 간편식을 중심으로 선보였으며, 제품 진열과 시식 운영 전반을 살펴며 전북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을 점검했다.

이어 K-MARKET과 동양농수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발성 행사를

넘어 전북 가공식품의 상시 입점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물량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3일에는 AEON MALL 등 베트남 주요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해 전주원예농협과 협력해 추진 중인 전북산 배 특별 판촉 행사의 운영 실태와 판매 동향을 살폈다. 전북산 배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재구매 가능성을 확인하며 신선농산물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도는 베트남 수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전문 수입사 및 대형 유통기업과 릴레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소방, 성탄절·연말

### 맞아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대책과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도내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는 12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는 31일 오후 6시부터 2026년 1월 4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간부를 비롯해 전 직원이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며, 기습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탄절 기념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장소 전주시청 노송광장(제야축제) 등 10곳에 소방차량 13대, 소방인력 53명을 사전에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종교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은 하루 2회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